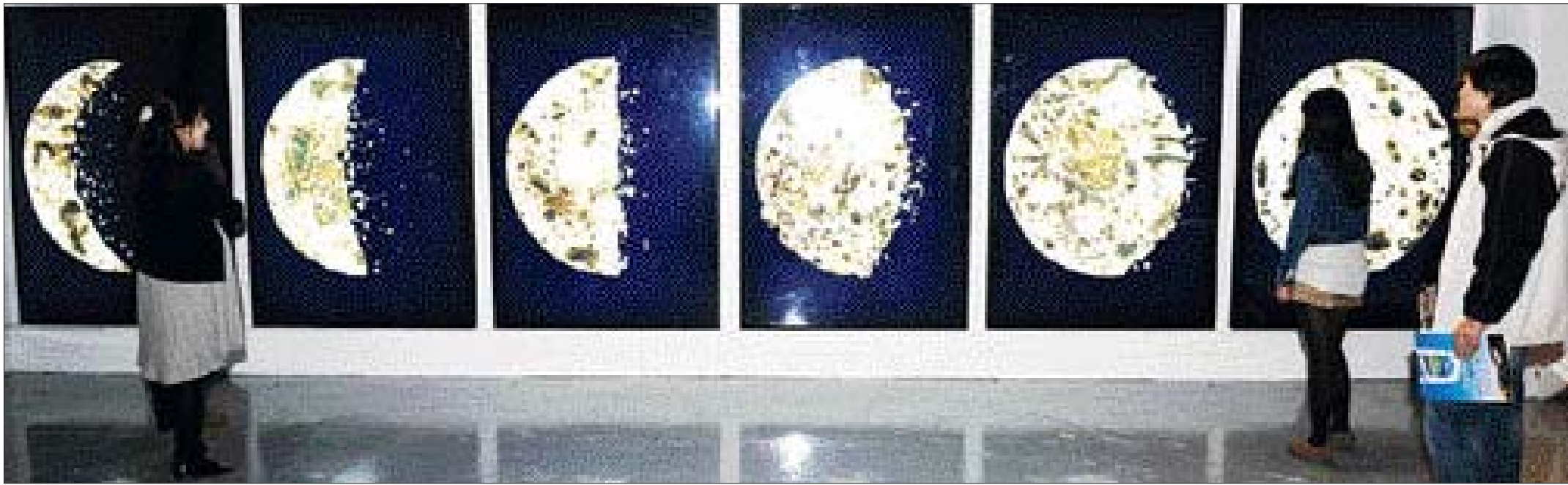


비엔날레 '역사' 한눈에 광주비엔날레 홍보자료관 개관



광주비엔날레 홍보자료관에 전시된 인도 작가 지티쉬 칼라트의 '컨디션스 어플라이'(conditions Apply·2006년). 인도의 추식인 구운 빵 로티(식량)가 조금씩 줄어들어 들어가는 모습을 달이 기울어 가는 과정으로 형상화한 사진 작품이다.

백남준 '고인돌' 등 수상·기증작 전시 미술 서적, 사진·비디오 테이프도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자료관(1천765㎡)이 개관했다. 비엔날레 재단은 1일 "그동안 전시 공간이 없어 역대 대상자들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홍보자료관 개관으로 비엔날레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비엔날레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엔날레관 제5전시실에 들어선 홍보자료관에는 1회 대상 수상작인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1995년)를 비롯해 백남준의 '고인돌'(1995), 임옥상의 '차나 한 잔 합시다'(2004) 등의 기증작들도 전시돼 있다. 특히 홍보자료관에는 다목적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으로 나뉘어 비엔날레 등 국내외 미술행사와 관련한 각종 도서 2천600여권,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5천여점의 자료가 비치됐다. 한편 재단은 홍보자료관 개관기념으로 오는 14일까지 유재길(1회), 신경호(1회), 손봉재(2·6회), 정기현(6회)씨 등 역대 비엔날레에 참여한 지역작가 20명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첫 우주인... 우주여행 책 '붓물'

'우주를 향한 165일간의 도전' 등 성인·이동물 10권

오는 8일은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비행을 떠나는 날. 최근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점가에는 우주와 관련된 서적이 잇따라 출판돼 눈길을 끈다. 지난달 31일 현재 우주여행 책은 성인과 아동물을 통틀어 10권이 넘는다.

'우주를 향한 165일간의 도전'(시그마북스)은 대한민국 우주인 2차 선발과정까지 통과한 우주인 후보 30명의 165일간의 도전과 선발과정을 쓴 책이다.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된 이소연, 고산 씨를 비롯해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후보 선발 과정을 통해 도전의 기쁨을 알게 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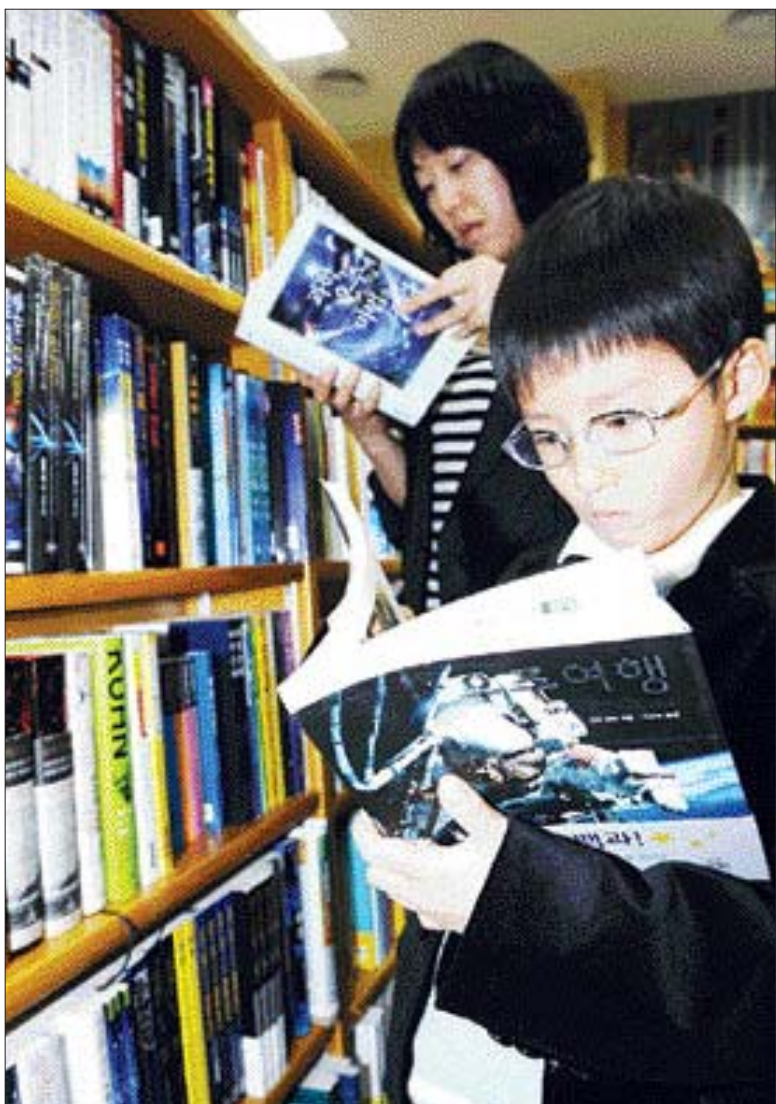
책에서 이소연 씨는 "지도 교수님조차도 '우주인에 지원했다고?' 지원자들 중에는 공군 조종사도 있다는데 되겠어?"라고 하셨다"며 "정말 최종 여보 명은 안감생심 바라지도 못했던 것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현직 과학동아 기자로 한국 우주인 후보 30명에 들었던 안영준 씨가 쓴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과학동아북스)'는 취재기 겸 체험기다. 어린이 독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펴낸 이 책은 우주인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 소유즈 우주선의 구조, 국제 우주정거장에 대한 설명 등 관련 지

식이 담겨 있다. '우주여행, 골드핀을 향한 도전'(풀빛)은 1978년 미항공우주국(NASA)이 최초로 모집한 우주왕복선에 올랐던 우주인 마이크 말레인 대령이 들려주는 우주여행사에 대한 이야기다.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서는 우주비행사들이 콘돔처럼 생긴 납성용 소변 수집장치를 들고서 난감해 하는 등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담았다. 또 죽음과 비행 실패에 대한 공포, 비행사들의 경쟁, NASA 조직의 불합리성, 언론의 관심에 따른 부담 등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우주인들의 고뇌도 함께 실었다. 이밖에 말레인은 미국 전역을 순회 강연하며 대중들로부터 받은 질문 500가지를 주제별로 정리해 '우주여행사가 들려주는 우주여행 설명서'(한스)도 펴냈다.

'우주여행 상식사전'(뿌리와 이파리)은 미국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빌 코민스가 쓴 우주여행 가이드북으로 예비 우주 여행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우주여행의 위험성을 열거했다.

또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자전적 에세이 '지구엔 푸른 빛이었다'(갈라파고스)도 출간됐다. /이문기기자emlee@kwangju.co.kr·연합뉴스



1일 오후 광주 영풍문고 우주서적 코너에서 한 어린이가 우주여행과 관련된 책을 보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 개관

전남도 청사 윤선도홀 낙죽장도 등 91점 전시

전남도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사진)'을 도청사 1층 윤선도홀에 설치했다.

전시관에는 곡식 낙죽장도, 나주 염색장, 나주 반장, 광양 공시장 등 국가·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7명이 만든 9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장인



들이 제작한 새 작품을 수시로 교체 전시하고, 전시 교육을 하는 등 남도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요일 밤엔 인문학 강좌를...

전남대 오늘부터 매주 광주고속터미널 유스퀘어서 특강

'수요일 밤엔 인문학 강좌를...'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이 마련됐다.

전남대학교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고속터미널 유스퀘어 2층 회의실에서 인문학 담론의 장인 '수요일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강의는 김택(전남대 역사교육

과) 교수가 진행하는 '우리 역사 이야기'와 지역 출신 문인 및 인문학 교수들이 들려주는 '인문학 특강'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 한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우리 역사 이야기'는 2일 첫 강좌 '한국사, 왜 하는 가'를 시작으로 매달 두 차례씩 열린다. '인문학 특강'은 오는 16일 열리는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 한민족 공동체'(임재완 전남대 한성문화연구원장)를 시작으로 '내 문화의 요람-전라도(천승호·4월 23일)', '나의 소설-역사 의식과 한(문순태·5월 21일)' 등이 준비돼 있으며 한승원(소설가),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도 강연에 나선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5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530-113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50% off SALE

1년 딱한번 4월20일 까지

이태리 가구전문점

(주)홍스페이스빌딩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전여고 사이)
062)226-7565~7

대인동상일부동산 ☎(대)223-1140, 5210 번 011-002-2532 (광주영흥 신문정림, 대인동 상생서너-대인)	일가공인중개사 ☎(대)234-0216 번 011-608-0896 (광주무제국부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번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렌트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림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송정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3㎡(40평) 3층 10억 -광안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북문동 한양대 인근 코-1 대지 294㎡(89평) 4억 -광화동 39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백동 대림점 대지 380㎡(118평) 6층 6억 2천만	▶ 빌딩 -대지 600 건물 1,352 보 36억/월세 3,100만원(지역 최고 상권) 용지 12억대 779㎡(대림교교차로) -대지 260/건 22,000, 보 20억/월 4,000만원 용지 18억 대지 765㎡ -대 200/건 775, 보 6000여의 월 1,700만원(신축) 용지 18억 대지 344㎡ -대 200/건 900, 보 6000여의 월세 1,100만원 대지 765㎡ -대 300/건 1,200 보 1억/월 800만원 대지 765㎡ 5년 -대 125/건 175, 보 1억/월 800만원 대지 1546㎡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점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8㎡(1,200평) 2억 4천만 -월산동 대림점 1,090㎡(330평) 4억 4천만 -광안동 25㎡ 2,319㎡(700평) 3.3㎡당 250만 -도산동 지면대지 16,530㎡(5만평) 3.3㎡당 75만 -도산동 건물임대 주택지 6,611㎡(2천평) 20억 -인행동 주택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황동동 주택지 75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택지 1,490㎡(450평) 1억 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 4천만 -자산동 녹지 3,840㎡(1,100평) 3억 5천만 -대림점 상가점 대지 2,300㎡(700평) 2억 -화산 남면 대지 680㎡(200평) 한옥 4천만	▶ 땅 (상무지구) -2,800㎡(850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 1,200만원 (유류기) -450㎡(138평) 3.3㎡당 850만원(유류기)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영역지구) (7단지) -자산동 녹지 대지 3,000㎡(9000평) (예산, 화 일터) 평당 180만원 -주거지 900㎡(2700평) (예산) 평당 187㎡(266평) 3.3㎡당 1350만원(유류기) -농성광산구 등산로 73,000㎡(2만2천평) 농성 3.3㎡당 11만(월세 400만원) -광동동 3,760㎡(1140평) 평당 400만원
임야 -화산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산 도곡 이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산 도곡 3,200㎡(9600평) 6만 -화산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산 동림동 대지 218,000㎡(6만6천평) 3.3㎡당 6천만 -화산 이산 53,000㎡(1만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리 대림점 대지 760㎡(230평) 8억 -금곡동 종합대지 300㎡(900평) 400만 -화산 계곡점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부지 30,000㎡(9000평) 1억 2천만	▶ 병원·화원·수파·식당 기타 -화산 상생정촌(수파) 1,200㎡(360평) 3.3㎡당 350만원 (병원 학원 식당차량) -각설로가 매매가 189㎡ -대지 500/건 1,900 시유나 -대지 789㎡ ▶ 모델·호텔매매·사무나 -관산동 44개 중개 16억 대지 127㎡ -각설로가 매매가 189㎡ -대지 500/건 1,900 사무나 -대지 789㎡ ★24시간 전화 문의 접수함. 다사